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알아야 하나님이 쓰신다.
2. <아는 자>는 이긴다. <아는 자>는 성공한다.
3. <아는 자>는 전쟁터에서도 살아남는다.
4. 알면, ‘죽을 데’ 서 살게 된다.
5.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6. 알아야 ‘천국’ 에 가고, 모르면 ‘지옥’ 에 간다.
7. 모르면, ‘육’ 으로도 죽을 수 있고, ‘영’ 으로도 죽을 수 있다.
<아는 것>이 그리도 크다.
8. <자기 축복>도 ‘알아야’ 누린다.
9.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영의 세계’ 다. <영의 세계>에 대해 알아야 이기며 살게 된다.
10. 알려면, 쫓아다니고, 확인하고, 서둘러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11.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을 받고 살아야

된다.

12. <기성인들>은 ‘기성 주관권’에서 살 수 밖에 없다. <토끼들>이 중심이 돼서 사는 곳에 ‘호랑이’가 가도, ‘토끼’ 밑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그대로 주관을 받고 살 수 밖에 없다.
13. 사람은 ‘자기 뇌’에 들어있는 대로 주장한다. <뜨거운 물>을 넣어 놓으면 ‘뜨거운 것’을 주장하고, <차가운 물>을 넣어 놓으면 ‘차가운 것’을 주장한다.
14. <인간의 뇌, 머리>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
15. 한번은 섭리역사가 성장 중에 있을 때 선생이 하나님께 묻기를, “성장기 때도 많이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 못 누린다. 조금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쓰고 누리면서 가야 된다. <과정 중>에 누려라. <과정 중>에 노래하고, 춤 춰라. <과정 중>에 행하여라.” 말씀하셨다.
16. <성장>하면서 누려야 된다. - 이같이 아는 자는 ‘하나님적 지식’을 가진 자다.
17.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적 지식에 대해 모르는 자’요,

‘관념적인 사고’ 만 가진 자다.

18. 인생은 알고 보면 ‘개인전’ 이다. 고로 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을 해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짓을 해도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19.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네 갈 길을 가는 것이다.

20. 하나님과 일체되어 생각하고 행해야 성공한다.

21. 알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을 간다.

22. <하나님>도 가르쳐서 쓰신다. 알지 못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3.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시대 사람들>을 보아라. 못한 대로 지나가고 늙어서 그 <육>도 죽음으로 끝나고, <영>도 사망으로 끝났다.

24. 모르는 만큼 <자기 영>도 ‘그에 해당되는 영계’ 에서 산다.

25. 하나님은 시대마다 ‘아는 자’ 를 보내시어 그를 쓰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 을 펴나가신다.

26. <모르는 사람>은 늘 옆에 같이 다니고 있어도 모른다.

27. 알아도, 잊어버리면 행할 수 없다.
28. 알면, 그 자리에서 행해버린다.
29. <아는 것>을 잊지 말고 그때마다 행하기다.
30. 알지 못해서 <사고>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육>으로도 <영>으로도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
31. <모르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보낸 자’가 와서 같이 행하고 있는데도 손가락질 하며 비웃는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어떻게 통하고 만나는지 배우고 알아야 된다.
33. 모르면, 평생 ‘자기 생각 위치’에 처해서 살아간다.
34. 먼저 배우고서 행하기다.
35. <주>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해 배우고 알아서 구원 시킨다. 알지 못하면, 구원 시킬 수 없다.
36. 모르면, ‘사망’으로 간다.알면, ‘영원한 황금성 천국’으로 간다.

37. <주>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지 알아라.

38. <주가 가르쳐 주는 것>이 ‘금덩이’다.

39. <주>께 배워라. 그러면 ‘주’가 쓰신다.

40. <자기 인식>대로 살면서 그것이 ‘주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인줄 안다. <속아서 사는 자들>이다.

41.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물어보고 완전하게 행하여라.

42. <자기 인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대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통한다.

43. <자기 인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뜻’인줄 알고 달려가니 얼마나 안타깝느냐. 고로 매일 확인하고 행하여라.

44.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한다.

◎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45. 선생이 하나님께 묻기를, “사람들 중에 보편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미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미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다. 미인은 모든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셨다.

46. <하나님과 성령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체’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닮아있다. 또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과 <그 뜻>대로 행하니, ‘하나님과 성령님의 모양과 형체’로 닮아간다. 마치 결혼하면 남편과 부인이 서로 행실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는 것과 같다.
47. <사람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 형상이 이뤄진다.
48. <팔방미인>은 ‘많은 사람들의 형상’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도 ‘많은 사람들의 형상’을 갖고 있다. 곧,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닮아있다는 것이다.
49. <월명동>은 여러 가지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고로 ‘많은 지역에 있는 것’과 닮아있다. 이와 같이 <팔방미인, 미남>은 ‘많은 사람의 모양과 형체’를 닮아있다는 것이다.